

경찰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이준희

경찰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노 재 훈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12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준 희

이준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노 재 희 인 

심사위원 원 종욱 인 

심사위원 김 인 아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년 6월 12일

감사의 글

논문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향해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의 설정과 목표를 향해 가는 마음가짐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 논문은 책 한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다시 정하게 해준 이정표입니다.

보건학과에 들어와 더 넓은 세상과 생각을 만나게 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상 관심과 배려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노재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현재의 제가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종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의 진행이 가능하게 노력해 주신 김인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논문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하시는 모습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정필균 선생님, 석홍덕 선생님, 이완형 선생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료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경찰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경찰관의 건강 향상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을 항상 본인들의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삶의 이유이자 삶의 원동력인 저의 아내 태경과 아들 용원이 그리고 출

산 예정인 용용이 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논문을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보실 저희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저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것 같은 시절에도 항상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부모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셨던 제게 주신 마음으로 지금의 성과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제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이준희 올림

차 례

국 문 요 약

I. 서론	1
II. 연구 목적	4
III. 연구 방법	5
1. 연구 대상	5
2. 연구 방법	7
IV. 연구 결과	9
1.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외상경험 종류 및 외상경험 시기	9
2.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비율	12
3.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오즈비	14
4. 경찰관의 연령별 계급 구성	17
5. 연령, 계급, 외상종류, 외상경험 시기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	18
6. 부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 분석	21
V. 고 찰	23
VI. 결 론	28

표 차 례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외상경험 종류 및 외상경험 시기	11
표 2. 경찰관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 및 정상군 분류.....	13
표 3.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오즈비.....	16
표 4.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계급 구성.....	17
표 5. 연령, 계급, 외상종류, 외상경험시기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 피, 과각성 점수의 경향성 검정.....	20
표 6. 부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 분포.....	22

그림 차례

그림1. 연구 대상자 선정	6
----------------------	---

국 문 요 약

연구 목적: 우리나라 경찰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경찰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경찰관은 직업적 특성상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 하게 되며 따라서 심리적, 육체적 외상을 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업무 특성에 맞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이 경험하는 외상의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의 빈도를 살펴보고, 관련된 직업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12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 스트레스 실태 조사를 시행 하였고 실태조사 설문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 충격 척도 수정 한글판 (IES-R-K) 설문 자료를 받아 분석 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후 1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찰관 3,817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경찰관의 경험 외상 종류, 계급, 성별, 연령, 근무 부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외상경험 경찰관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비율을 산출 하였고 전체 경찰관 중 41.1%가 고위험군 으로 분류 되었다.

외상 경험 종류에 따라서는 간접외상 경험자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직접 외상 경험자의 오즈비가 2.61(95% 신뢰구간 2.19-3.11)로 유의하였으며 충격사건 경험자는 3.43(95% 신뢰구간 2.46-4.77)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대하여는 남성을 참고군 으로 하여 여성의 오즈비를 분석하였고 1.38(95% 신뢰구간 1.03-1.86)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이에 따라서는 20대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30대에서 2.24(95% 신뢰구간 1.26-2.23), 40대에서 2.45(95% 신뢰구간 1.68-2.99), 50대에서 2.71(95% 신뢰구간 1.99-3.68)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계급의 경우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을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경장에서 1.56(95% 신뢰구간 1.23-1.99), 경사에서 1.69(95% 신뢰구간 1.38-2.06), 경위에서 1.91(95% 신뢰구간 1.54-2.37)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으나 경정 이상의 계급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부서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상 오즈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되었던 부서는 수사, 형사, 교통, 지역경찰, 기동대, 생활안전 등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교통부서, 지역경찰, 생활안전은 경무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오즈비를 보였으나 수사, 형사, 기동대는 그렇지 않았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정보·보안부서에서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성별, 나이, 계급을 보정한 오즈비가 교통부서에서 1.92(95% 신뢰구간 1.17-3.03)로 가장 높았고 정보·보안부서에서 1.90(95% 신뢰구간 1.03-3.50)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연령과 계급의 증가에 따라 침습, 과각성, 회피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중 41.11%가 고위험군 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는 소방관등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고위험군 비율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 개입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한 계층은 충기사건을 경험한 50대 이상의 경위 계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보안 부서에서 외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이유를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수사, 형사, 기동대 부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단면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건강 근로자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건강, 외상경험척도 수정 한글판 (IES-R-K)

I. 서론

2012년 현재 전국 경찰공무원의 수는 102,386명이며 경찰공무원의 성비는 남자 93.7%, 여자 6.3% 이며 평균연령은 41.8세이다. 우리나라의 112 신고 건수는 2010년 8,549,511건에 비해 2011년 9,951,202건으로 16.4%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고건수의 증가에 비해 경찰 정원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매년 1%내외였으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98명으로 미국 351명, 프랑스 347명, 독일 320명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치안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경찰청,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전 10년에 비해 강력범죄가 8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영국에서는 경찰의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을 OECD 가입 국가별로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강간 11위, 살인 6위 로 높은 강력 범죄율을 나타냈다(Nick 등, 2010).

경찰관은 직업적 특성상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 하게 되며 따라서 심리적, 육체적 외상을 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Violanti, 2006). 경찰관의 근무 중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옥정 등, 2010.;하미나 등, 2003)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이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발생 하거나 조기 퇴직을 하는 등의 문제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신성원, 2011).

위의 내용과 같이 한국의 1인당 강력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에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 보건 연구 영역에서 경찰관과 같은 특수 직군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의 실태 연구도 많지 않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자연재해, 폭행, 강간, 심한사고 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이후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증후군으로 일반인에서 유병률은 1-3%정도로 알려져 있고 진단받지 않더라도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5-15%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어느 연령층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외상을 경험한 상황의 재현에 의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이외에도 불면, 회피 등 다양한 증상이 발현 될 수 있다(최신정신의학, 2005).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는 사회공포증, 강박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포함하는 불안장애를 경험한 국내 인구는 6.8%로 나타났다(조명제, 2011). 외국에서 시행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를 보면 사건충격척도를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 비율을 분석해 본 연구가 있었는데 미국 지역 소방관 중 22.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으로 분류 되었고, 캐나다 지역 소방관 17.3%가 고위험군 으로 분류되었다(Horowitz, 1979; Corneil, 1999). 국내의 연구를 보면 서울지역 소방관 1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중 20명(13.7%)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이었다(권순찬, 2008). 국내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07년 현직 경찰관 1,044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충격척도 설문을 시행 하였고 이중 33.3%가 고위험군 이라는 결과를 얻은 연구가 있었다(신성원 등, 2007). 국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총 6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중 12.7%가 고위험군 이었다(황인희, 2009).

위와 같이 경찰관의 업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빈도가 높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야 함에도 현재 국내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어 경찰의 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연령, 성별, 계급, 부서 등의 요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찰관 스트레스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사건충격척도 개정 한글판 (IES-R-K)의 점수를 산출하여 경찰의 직업적인 특성과 관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빈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인 경찰관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분석한다.(계급, 성별, 연령, 근무부서, 외상사건 경험 종류, 외상사건 경험 시기)
2. 사건충격척도 개정 한글판 (IES-R-K)을 이용하여 산출한 고위험군 빈도를 분석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과 일반적, 직업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3. 경찰관의 계급, 연령, 부서, 성별, 외상사건 종류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취약 계층을 선별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8월 한 달간 경찰청에서 시행한 ‘경찰 스트레스 조사’의 원 자료를 제공받아 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사건 충격 척도와 활용 가능한 인적 사항, 외상성 사건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경찰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하여 시행 되었으며 20,78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제공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자 202명을 제외 하고 외상을 겪지 않았다고 대답한 7,025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감안하여 1개월 이내 외상 경험자 1,700명을 제외 하였다. 또한 증상의 지속정도를 감안하여 외상 경험을 1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8,036명을 제외한 3,81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년 이상된 외상경험자를 배제한 이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성상 외상 경험 1개월 이후 언제든 지연성 발병이 가능하나 분석 자료 중 근속 년수, 진급 시점, 부서력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시점이나 사고경험 당시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을 확인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1년 이후 어느 시점에 외상을 경험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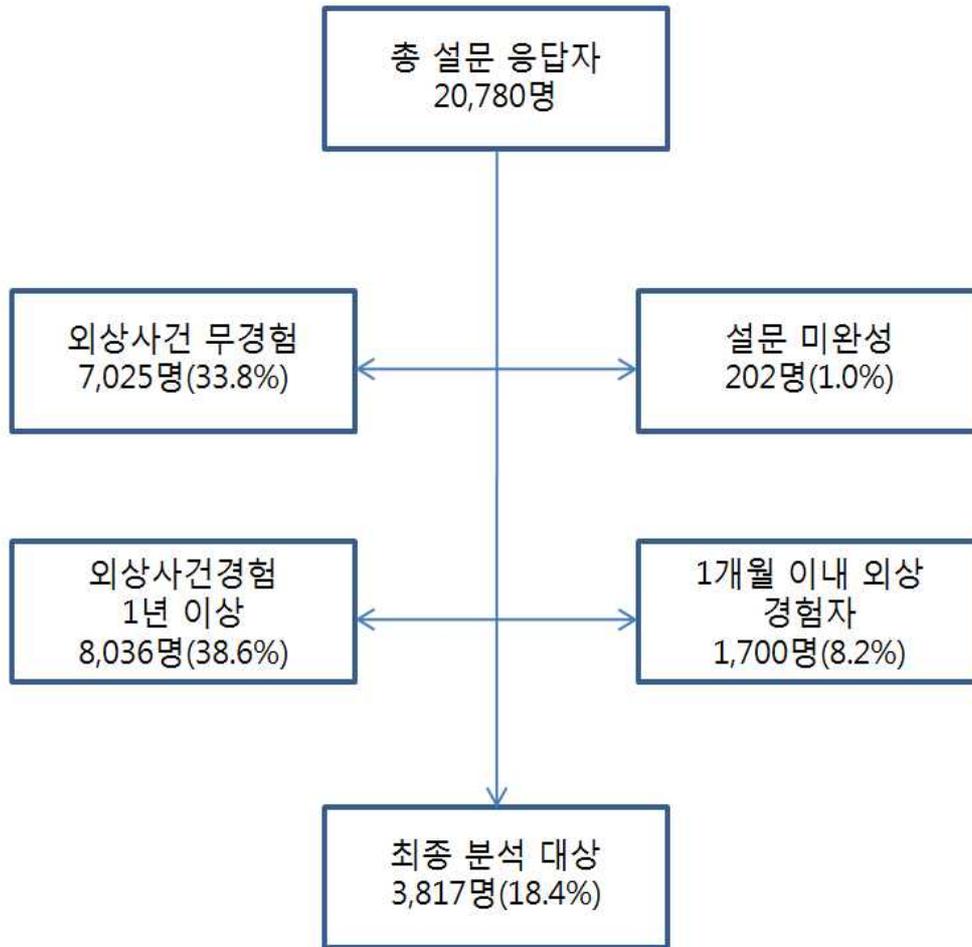


그림1. 연구 대상자 선정

2. 연구 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에는 성별, 연령, 계급, 근무부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상의 경험 유무를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총기사용 유무, 외상 직접경험, 외상의 목격)을 포함 하고 있었다. 경찰청에서 조사에 사용한 설문에서는 세 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사건 충격 척도(IES-R-K)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건 충격 척도 설문은 Horowitz가 화상 경험 후에 적응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세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Nozomu 등, 2000; Alain 등, 2003; Wu 등, 2003). 한국에서는 2004년 사건충격척도(IES-R)를 한글화하여 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성하는 심리적 반응을 검사 할 수 있는 설문을 같이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 사건충격척도 수정 한글판(IES-R-K)과 타 설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8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25점의 절단점 으로 하여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0.83점이었다.(은헌정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사건충격척도 수정 한글판(IES-R-K)을 사용한 설문 조사를 제공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하여 사건충격척도 수정 한글판(IES-R-K)의 구성 설문인 총 22문항에 대한 점수를 각 문항 당 0-4점으로 변환하여 총점을 산출 하였고, 총점 25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경우 고위험군 으로 선별 하였다. 또한 본 설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성하는 침습, 회피, 과각성의 점수를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침습은 외

상 경험 후 외상을 수면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재경험 하는 것이며 회피는 외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을 회피하려 하는 반응이다. 과각성은 수면장애, 일상생활 중의 이상 각성상태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선미 등, 1999).

3) 일반적, 직업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등이 있으며 직업적 특성으로는 근무부서, 계급, 외상경험 종류(직접외상, 외상사건 목격), 외상경험 시기(1개월 이내, 1-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총기사용 유무 등이 있었다. 외상 사건의 경험은 국내의 여건상 총기사용을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하였고 직접외상을 당한 경우인 직접 외상 경험, 외상 경험을 목격한 간접 외상 경험의 순서로 강도를 설정하여 사건의 종류를 중복 선택한 경우 더 높은 강도의 사건을 경험 사건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방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연령, 성별, 근무 부서, 계급, 외상사건 종류별 빈도에 대하여 χ^2 검정을 시행하였다. 본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침습, 회피, 과각성에 대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 하였고 계수는 0.92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고위험군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고 오즈비의 증가 및 감소 양상에 대한 경향성 검정을 시행 하였다.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와 연령 상승과 계급상승과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ochran-Armitage 경향성 검정을 시행 하였다. 연령과 직급간의 다중 공선성 분석을 시행 하였고 분석 결과 서로간의 다중 공선성은 존재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급과 연령을 모두 다변량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9.2 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외상경험 종류 및 외상경험 시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별로 40대가 1,574명(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237명(32.4%), 50대 이상 709명(18.5%), 20대 297명(7.7%)의 순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3,606명(94.4%) 이었고 여성은 211명(5.5%)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근무부서별로 보았을 때는 지역경찰이 1,657명(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안전이 831명(21.7%)으로 많았다. 이외에 형사가 355명(9.3%), 수사 263명(6.8%), 교통 300명(7.8%), 경비 132명(3.4%), 경무 110명(2.8%), 정보·보안 78명(2.0%), 청문 33명(0.8%), 기동대 58명(1.5%) 의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1,541명(40.3%)으로 가장 많은 수가 본 설문에 참여하였다. 경위 938명(24.5%), 순경 664명(17.4%), 경장 535명(14.0%), 경감 120명(3.1%) 이었고 경정이상은 1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경정 이상의 모든 계급을 포함한 것이다.

외상경험의 종류는 직접외상 경험자가 2,761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접외상 경험자가 864명(22.6%)이었다. 총격사건 경험자는 192명(5.1%)이 있었다. 외상경험 종류를 보면 총기사용의 경우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8.1%로 가장 많았고 40대에서 6.9%로 다음으로 많았다. 직접외상 경험은 40대에서 7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에서 72.0%로 많았다. 간접외상은 20대에서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에서 26.0%로 많았다. 성별로 살펴 보면 남성에서는 직접외상 경험이 73.7%로 가장 많았고 여성에서는 간

접외상 경험이 50.3%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별로 보면 총격사건 경험은 형사에서 6.5%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부서에서 6.0%로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경찰에서도 5.45%가 총격사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생활안전 부서에서도 4.7%가 경험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직접사건 경험은 정보·보안 부서에서 82.1%로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비부서(78.8%), 교통부서(74.3%), 수사부서(72.6%)순으로 직접외상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계급별로는 경감에서 총격사건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5%) 다음으로 경위(7.2%), 경사(6.5%)순 이었다. 직접외상 경험은 경사에서 가장 높았고(77.0%), 다음으로 경장(74.4%), 경위(71.7%)순서로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외상경험 시기별로는 20대가 1-6개월 사이의 외상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였고(60.9%), 부서별로는 형사(63.1%), 지역경찰(62.8)에서 1-6개월 사이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계급별로는 경정 이상의 계급에서 57.9%가 1-6개월 사이의 외상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직업적 특성에 따른 외상경험 종류 및 외상경험 시기

단위: 명(%)

특성	외상 경험 종류			외상 경험 시기		총 인원	
	총기사용	직접외상	간접외상	1-6 개월	6-12개월		
연령							
	20-29	2 (0.7)	173 (58.3)	122 (41.0)	181 (60.9)	116 (39.1)	297 (7.7)
	30-39	24 (2.0)	891 (72.0)	322 (26.0)	655 (52.9)	582 (47.1)	1,237 (32.5)
	40-49	109 (6.9)	1,204 (76.5)	261 (16.6)	910 (57.8)	664 (42.2)	1,574 (41.2)
	50이상	57 (8.1)	493 (69.5)	159 (22.4)	400 (56.4)	309 (43.6)	709 (18.6)
성별							
	남성	189 (5.2)	2,659 (73.7)	758 (21.1)	2,046 (56.7)	1,560 (43.3)	3,606 (94.5)
	여성	3 (1.4)	102 (48.3)	106 (50.3)	100 (47.4)	111 (52.6)	211 (5.5)
근무부서							
	경무	3 (2.7)	77 (70.0)	30 (27.3)	30 (27.3)	80 (72.7)	110 (2.8)
	경비	4 (3.0)	104 (78.8)	24 (18.2)	48 (36.4)	84 (63.6)	132 (3.4)
	교통	18 (6.0)	223 (74.3)	59 (19.7)	166 (55.3)	134 (44.7)	300 (7.8)
	수사	11 (4.2)	191 (72.6)	61 (23.2)	113 (42.9)	150 (57.1)	263 (6.5)
	형사	23 (6.5)	243 (68.5)	89 (25.0)	224 (63.1)	131 (36.9)	355 (9.3)
	지역경찰	90 (5.4)	1,223 (73.8)	344 (20.8)	1,040 (62.8)	617 (37.1)	1,657 (43.4)
	정보, 보안	3 (3.8)	64 (82.1)	11 (14.1)	28 (35.9)	50 (64.1)	78 (2.0)
	기동대	1 (1.7)	34 (58.6)	23 (39.7)	23 (39.6)	35 (60.4)	58 (1.5)
	청문	0 (0.0)	21 (63.6)	12 (36.4)	14 (42.4)	19 (57.6)	33 (0.8)
	생활안전	39 (4.7)	581 (69.9)	211 (25.4)	460 (55.3)	371 (44.7)	831 (21.7)
계급							
	순경	6 (0.9)	416 (62.6)	242 (36.5)	396 (59.6)	268 (40.4)	664 (17.4)
	경장	10 (1.9)	398 (74.4)	127 (23.7)	278 (52.0)	257 (48.0)	535 (14.0)
	경사	100 (6.5)	1,187 (77.0)	254 (16.5)	874 (56.7)	667 (43.3)	1,541 (40.3)
	경위	67 (7.2)	673 (71.7)	198 (21.1)	526 (56.1)	412 (43.9)	938 (24.5)
	경감	9 (7.5)	78 (65.0)	33 (27.5)	64 (53.3)	56 (46.7)	120 (3.1)
	경정 이상	0 (0.0)	9 (47.4)	10 (52.6)	8 (42.1)	11 (57.9)	19 (0.5)
총 인원		192 (5.1)	2,761 (72.3)	864 (22.6)	2,146 (56.2)	1,671 (43.8)	3,817 (100.0)

2.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비율

사건충격척도 수정 한글판(IES-R-K) 점수가 25점 이상인 고위험군의 비율을 보면 연령별로는 50대에서 48.3%가 고위험군으로 분류 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에서 고위험군이 43.4%로 다음으로 높았다. 30대에서는 29.5%, 20대 에서는 27.6%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외상 사건 경험 종류별로 보면 간접외상을 경험한 군에서는 24.5%가 고위험 군이었으며 직접외상을 경험한 경우 45.4%, 총격사건을 경험한 경우 54.2%가 고위험 군으로 분류 되었다.

근무부서 별로 보면 지역경찰에서 가장 많은 45.9% 비율의 고위험군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보·보안 부서에서 43.5% 비율을 보였다. 교통 부서에서는 43.3%, 생활안전 42.2%, 형사 37.4%, 수사 36.5%, 경비 34.1%, 청문 33.3%, 기동대 29.3%, 경무는 28.1%의 비율을 보였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에서 45.9%로 가장 많은 고위험군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사에서 42.7% 로 고위험군 비율을 보였다. 경장은 41.1%, 경감은 35.8%, 순경은 32.2%, 경정이상은 16.6%에서 고위험군 비율을 보였다.

외상을 경험한 총 조사 인원 3,817명 중 1,569명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분류기준인 2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이는 해당 인원의 41.1%를 차지한다.

표 2. 경찰관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 및 정상군 분류

단위: 명(%)

특성	고위험군	정상군	총 인원	p-value†
외상종류				
간접외상	212 (24.5)	652 (75.5)	864 (100.0)	<0.001*
직접외상	1,253 (45.4)	1,508 (54.6)	1,508 (100.0)	
총기사용	104 (54.2)	88 (45.8)	192 (100.0)	
외상경험시기				
1-6 개월	896 (41.7)	1,250 (58.3)	2,146 (100.0)	0.370
6-12개월	673 (40.3)	998 (59.7)	1,671 (100.0)	
연령				
20-29	82 (27.6)	215 (72.4)	297 (100.0)	<0.001*
30-39	463 (37.4)	774 (62.6)	1,237 (100.0)	
40-49	681 (43.3)	893 (56.7)	1,574 (100.0)	
50이상	343 (48.4)	366 (51.6)	709 (100.0)	
성별				
남성	1,480 (41.0)	2,126 (59.0)	3,606 (100.0)	0.106
여성	89 (42.2)	122 (57.8)	211 (100.0)	
근무부서				
경무	31 (28.2)	79 (71.8)	110 (100.0)	0.004*
경비	45 (34.1)	87 (65.9)	132 (100.0)	
교통	130 (43.3)	170 (56.7)	300 (100.0)	
수사	96 (36.5)	167 (63.5)	263 (100.0)	
형사	133 (37.4)	222 (62.6)	355 (100.0)	
지역경찰	721 (43.5)	936 (56.5)	1,657 (100.0)	
정보·보안	34 (43.6)	44 (56.4)	78 (100.0)	
기동대	17 (29.3)	41 (70.7)	58 (100.0)	
청문	11 (33.3)	22 (66.7)	33 (100.0)	
생활안전	351 (42.3)	480 (57.7)	831 (100.0)	
계급				
순경	214 (32.2)	450 (67.8)	664 (100.0)	<0.001*
경장	220 (41.1)	315 (58.9)	535 (100.0)	
경사	658 (42.7)	883 (57.3)	1,541 (100.0)	
경위	431 (45.9)	507 (54.1)	938 (100.0)	
경감	43 (35.8)	77 (64.2)	120 (100.0)	
경정 이상	3 (15.8)	16 (84.2)	19 (100.0)	
총 인원	1,569 (41.1)	2,248 (58.9)	3,817 (100.0)	

† p-value by chi-square test

* p-value: <0.05

3.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오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과 참고군을 이분형으로 나누어 오즈비를 분석해 보았다.

외상 경험 종류로 분석해 보면 간접외상 경험자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직접외상 경험자의 오즈비가 2.61(95% 신뢰구간 2.19-3.11)로 유의하였으며 총격사건 경험자는 3.43(95% 신뢰구간 2.46-4.77)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경험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6개월 전에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을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6-12개월 전 외상 경험자에서 오즈비가 0.94의 결과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을 참고군으로 하여 여성의 오즈비를 분석하였고 보정 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보정 후 1.38(95% 신뢰구간 1.03-1.86)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대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30대에서 1.56(95% 신뢰구간 1.18-2.07), 40대에서 1.68(95% 신뢰구간 1.26-2.23), 50대에서 1.99(95% 신뢰구간 1.52-2.62)의 결과를 보였다. 보정 하여 분석 하였을 때에는 30대에서 2.24(95% 신뢰구간 1.68-2.99), 40대에서 2.45(95% 신뢰구간 1.83-3.29), 50대에서 2.71(95% 신뢰구간 1.99-3.68)로 오즈비가 보정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계급에 따라서는 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순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즈비는 경장에서 1.46(95% 신뢰구간 1.15-1.86), 경사에서 1.56(95% 신뢰구간 1.29-1.89), 경위에서 1.78(95% 신뢰구간 1.45-2.19) 으로 유의 하게 나왔으며 경감 , 경정 이상의 계급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산출 되지 않았다. 보정 하여 분석 하였을 때에는 경장, 경사, 경위에서 각각 1.56(95% 신뢰구간 1.23-1.99), 1.69(95% 신뢰구간 1.38-2.06), 1.91(95% 신뢰구간 1.54-2.37) 으로 보정 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부서별 분석 결과는 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낮고 업무 특성상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무 부서를 참고군 으로 설정 하였다. 보정전의 결과가 유의한 부서는 교통, 지역경찰, 정보·보안, 생활안전의 네 군데의 부서였는데 교통부서 1.94(95% 신뢰구간 1.21-3.12), 지역경찰 1.96(95% 신뢰구간 1.28-3.00), 정보·보안 1.96(95%신뢰구간 1.06-3.62), 생활안전 1.86(95% 신뢰구간 1.20-2.88)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보정하여 분석한 경우 교통부서 1.88(95% 신뢰구간 1.21-3.12), 지역경찰 1.92(95% 신뢰구간 1.25-2.94), 정보·보안 1.90(95%신뢰구간 1.03-3.50), 생활안전 1.78(95% 신뢰구간 1.15-2.76) 로 다소 오즈비가 감소하였고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총격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에서 간접외상을 경험한 경찰관 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50대에서 높았으며 계급별로는 순경에 비해 경위 계급에서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부서별 오즈비는 경무를 참고군으로 하였을 때 교통부서, 지역경찰, 생활안전, 정보·보안부서가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오즈비를 보인 부서는 지역 경찰 이었다.

표 3.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오즈비

변수	Crude Odds Ratio		Adjusted Odds Ratio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외상종류 [†]	간접외상	1.00		1.00	
	직접외상	2.55	2.15-3.03	2.61	2.19-3.11
	총기사용	3.63	2.63-5.02	3.43	2.46-4.77
외상경험시기	1-6개월	1.00		1.00	
	6-12개월	0.94	0.82-1.07	0.94	0.83-1.08
연령 [†]	20-29	1.00			
	30-39	1.56	1.18-2.07	1.68	1.26-2.23
	40-49	1.99	1.52-2.62	2.24	1.68-2.99
	50이상	2.45	1.83-3.29	2.71	1.99-3.68
성별	남	1.00		1.00	
	여	1.04	0.79-1.38	1.38	1.03-1.86
근무부서	경무	1.00		1.00	
	경비	1.31	0.76-2.28	1.24	0.71-2.16
	교통	1.94	1.21-3.12	1.88	1.17-3.03
	수사	1.46	0.90-2.37	1.43	0.88-2.33
	형사	1.52	0.95-2.43	1.43	0.89-2.29
	지역경찰	1.96	1.28-3.00	1.92	1.25-2.94
	정보, 보안	1.96	1.06-3.62	1.90	1.03-3.50
	기동대	1.05	0.52-2.13	1.00	0.49-2.02
	청문	1.27	0.55-2.93	1.27	0.55-2.94
	생활안전	1.86	1.20-2.88	1.78	1.15-2.76
계급 [†]	순경	1.00		1.00	
	경장	1.46	1.15-1.86	1.56	1.23-1.99
	경사	1.56	1.29-1.89	1.69	1.38-2.06
	경위	1.78	1.45-2.19	1.91	1.54-2.37
	경감	1.17	0.78-1.76	1.24	0.82-1.87
	경정이상	0.39	0.11-1.36	0.42	0.12-1.48

[†] p value of trends for odds ratio, p value <0.05

4. 경찰관의 연령별 계급 구성

경찰관의 계급은 낮은 순서에서 부터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총감의 순서로 구성되는데 총경 이상의 경우 전국에 568명이 있고 본 설문에 응답한 수는 3명으로 그 수가 적어 경정 이상의 계급군을 하나로 구성 하였다(경찰청, 2012).

순경부터 경정 이상의 계급을 가진 경찰관의 연령 구성을 보면 순경은 20대가 247명이었고 30대가 417명 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경장에서는 3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5명, 20대도 29명이 있었다. 경사는 40대가 1,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14명이었다. 경위는 50대 이상이 5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18명으로 많았다. 경감은 50대 이상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30대와 40대 경감도 각 22명, 33명이 있었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계급 구성

단위: 명(%)

연령대	계급 구성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이상
20-29	247(6.31)	29(0.76)	5(0.13)	22(0.57)	0(0.00)	0(0.00)
30-39	417(10.92)	450(11.79)	314(8.23)	34(0.89)	22(0.58)	0(0.00)
40-49	5(0.14)	55(1.44)	1,151(30.15)	318(8.33)	33(0.86)	12(0.32)
50이상	1(0.03)	1(0.03)	71(1.86)	564(14.78)	65(1.70)	7(0.18)
총 인원	670(17.40)	535(14.02)	1,541(40.37)	938(24.57)	120(3.14)	19(0.50)

5. 연령, 계급, 외상종류, 외상경험 시기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구성 요소인 침습, 회피, 과각성의 점수를 산출 하였고 연령과 계급의 정도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침습의 경우 외상의 종류에 따라 간접외상 4점, 직접외상 9점, 총격사건 11점의 중위수를 보였고 회피의 경우에도 각각 5점, 9점, 10점의 점수 증가가 사건경험의 강도에 따른 경향성 검정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중위수 4점에서, 30대 7점, 40대 8점, 50대에서 9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경향성 검정에서 연령과 침습의 점수 증가가 유의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회피 점수는 중위수로 20대 4점, 30대 7점, 40대 8점, 50대 10점의 점수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연령과 회피의 점수 증가가 유의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과각성의 경우 20대에서 중위수 4점, 30대에서 7점, 40대에서 8점, 50대에서 10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연령에 증가에 따른 과각성 상승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계급에 따라서는 침습의 경우 순경에서 중위수 5점, 경장 7점, 경사 8점, 경위 9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경감에서는 7점, 경정 이상에서는 3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침습의 점수도 상승하는 경향성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회피의 경우 중위수는 순경 6점, 경장 8점, 경사 8점, 경위 9점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침습과 마찬가지로 경감에서 8점, 경정이상에서 4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각성의 경우 중위수는 순경 6점, 경장 8점, 경사 8점, 경위 9점, 경감 8점으로 비슷하거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경정이상에서는 3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침습, 회피, 과각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계급에 따라서는 침습의 경우 경위 까지는 계급에 따라 중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으나 회피와 과각성의 경우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경장과 경사의 경우 중위수와 사분위 범위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 계급의 상승과 관련된 경향성 검증은 침습, 회피, 과각성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연령, 계급, 외상종류, 외상경험시기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의 경향성 검정

변수		침습			회피			과각성		
		중위수	사분위 범위	p trend†	중위수	사분위 범위	p trend†	중위수	사분위 범위	p trend†
외상 종류	간접외상	4	(0- 9)	<0.001*	5	(1-10)	<0.001*	2	(0- 6)	<0.001*
	직접외상	9	(3-15)		9	(4-16)		5	(1-11)	
	총격사건	11	(5-18)		10	(4-17)		7	(2-12)	
외상경험시기	1-6개월	8	(3-14)	0.336	8	(3-15)	0.248	4	(0-10)	0.394
	6-12개월	7	(2-14)		8	(2-14)		5	(0-10)	
연령	20-29	4	(0-11)	<0.001*	4	(1-12)	<0.001*	4	(1-12)	<0.001*
	30-39	7	(2-13)		7	(2-14)		7	(2-14)	
	40-49	8	(8-14)		8	(3-15)		8	(3-15)	
	50이상	9	(4-15)		10	(4-16)		10	(4-16)	
계급	순경	5	(1-12)	<0.001*	6	(2-13)	<0.001*	6	(2-13)	<0.001*
	경장	7	(3-14)		8	(3-15)		8	(3-15)	
	경사	8	(3-14)		8	(3-15)		8	(3-15)	
	경위	9	(3-15)		9	(4-15)		9	(4-15)	
	경감	7	(2-13)		8	(2-13)		8	(2-13)	
	경정이상	3	(1- 6)		4	(1- 6)		3	(1- 6)	

† p for trend by Cochran-Armitage test

* p-value: <0.05

6. 부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 분석

표 4에서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부서에서의 침습, 회피, 과각성의 중위수를 보면 침습의 경우 교통, 지역경찰, 정보·보안, 생활안전 부서에서 모두 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회피의 경우 정보·보안부서가 가장 높은 중위수인 10점을 보였으며 교통, 지역경찰, 생활안전 부서는 모두 8점의 중위수를 보였다. 과각성의 경우에도 정보·보안부서가 10점으로 가장 높은 중위수를 나타내었다. 교통, 지역경찰, 생활안전 부서의 경우에는 중위수가 8점 이었다.

전반적으로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은 부서들에서 침습, 회피, 과각성의 중위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6. 부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침습, 회피, 과각성 점수 분포

변수	침습			회피			과각성		
	중위수	사분위 범위	p value†	중위수	사분위 범위	p value†	중위수	사분위 범위	p value†
부서 경무	5	(1-12)	p<0.001*	2	(7-11)	p<0.001*	7	(2-11)	p<0.001*
경비	7	(3-13)		7	(2-14)		7	(2-14)	
교통	8	(2-14)		8	(2-15)		8	(2-15)	
수사	6	(2-13)		6	(2-14)		6	(2-14)	
형사	7	(3-14)		7	(3-14)		7	(3-14)	
지역경찰	8	(2-14)		8	(3-15)		8	(3-15)	
정보,보안	8	(4-16)		10	(4-15)		10	(4-15)	
기동대	4	(2-11)		6	(2-13)		6	(2-13)	
청문	5	(2-11)		8	(2-11)		8	(2-11)	
생활안전	8	(2-14)		8	(3-15)		8	(3-15)	

† p-value by t-test

* p value <0.05

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척도 수정 한글판(IES-R-K)을 이용하여 산출된 점수 25점 이상을 절단점으로 하여 외상경험 경찰관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비율을 산출 하였다. 총 3,817명의 연구 대상자 중 1,569명이 고위험군 이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 중 41.1%의 비율이다. 외상종류에 따라서는 총기사용 경험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 지역경찰, 정보·보안, 생활안전의 부서에서 40%이상의 고위험군 비율을 보였다. 계급별로는 경위에서 45.9%로 가장 높은 고위험군 비율을 보였다. 나이와 계급, 부서, 성별, 외상경험 종류, 외상 경험 시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외상 경험 종류에 따라서 간접외상 경험자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직접외상 경험자의 오즈비가 2.61로 유의하였으며 총격사건 경험자는 3.43로 고위험군 발생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대하여는 남성을 참고군 으로 하여 여성의 오즈비를 분석하였고 보정 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보정 후 1.38(95% 신뢰구간 1.03-1.86)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여성이 경찰 내부에서 상대적인 수는 적으나 남성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나 외국의 연구 결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불안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Inslicht, 2014). 나이에 따라서는 20대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어 고위험군 발생 빈도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분석 되었다. 계급의 경우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을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경장에서 1.56, 경사에서 1.69, 경위에서

1.91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경정 이상의 계급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계급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경정이상의 계급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경찰의 연령별 계급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며 50대에서는 경위가 가장 많으나 그 위의 직급인 경감부터는 연령대가 혼재되어 있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경찰의 계급 구성을 보면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20대에 경위로 임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 4 에서와 같이 일정 계급 이상에서는 연령의 혼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영향으로 연령과 계급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국내 연구에서는 경사를 중심으로 경장 이하와 경위 이상으로 계급을 3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인 결과가 있었다(신성원, 2007). 부서별로는 교통, 지역경찰, 정보 보안, 생활 안전 부서에서 경무 부서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이중 정보·보안부서의 경우 현직 경찰관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부서의 특성을 유추 해 볼 수 있었으며 시위 현장의 분석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정보·보안부서의 특성상 단독으로 무전기 및 기타 장비를 착용한 채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타부서에 비해 일반적인 근무 상황에서는 외상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직접외상을 경험한 경우가 82.1%로 타 부서에 비해 높은 비율의 직접외상 경험자들이 본 설문에 참여 하였다. 따라서 외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시위현장 단독 근무 중 구타와 같이 타 부서에 비해 심각한 외상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 했다.

오즈비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기동대, 수사, 형사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상 1년간의 외상 경험만을 분석한 것으로 ‘건강 근로자 효과’를 배제 할 수 없는 연구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이라 추정된다. 지역경찰, 생활안

전, 교통부서는 사건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오즈비를 보인 것은 연구 이전의 예상과 같았다. 외상의 경험 시기에 대하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서 외상의 경험 시기가 증사의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국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에 본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있었고 주로 대형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선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미국 911 테러 발생 5주 후 뉴욕 맨하탄 'South of Canal Street' 거주민(무역센터 남쪽 구역) 1008명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고 대상자 중 7.5%의 거주민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Galea 등, 2002) 영국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구급요원을 대상으로 외상 경험 척도(IES-R) 설문을 시행하였고 연구 참여자 중 30%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Alexander 등, 2001)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4가지 대규모 사건 사례를 통하여 외상경험척도 수정 일본어판(IES-R-J)을 사용한 연구가 있었는데 1998년 일본 자동차 회사 폭발 사고 발생 후 3개월 후 설문을 시행하였고 남성 13.5%, 여성 31.8%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998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발생한 화학공장 유독물질 유출 사고 후 3개월 뒤 설문한 결과에서는 남성 31%, 여성 49.1%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발생 생존자 86명 대상으로 1년 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성 29.4%, 여성 49.1%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995년 음진리교 지하철 독가스 살포 사건 1년 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성 24.6%, 여성 35.8%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Nozumo 등, 2002)

본 연구의 결과로 전체 연구대상자중 41.1%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911 테러나 일본의 고베 대지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 등

과 같이 대규모 재해 사건과 비교하여도 높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전의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척도의 점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었는데(Neil 등, 1994)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위의 분석을 적용하여 보면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 중 17.3%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이전 국내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산출된 8.2% 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신덕용, 2012)

이전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외상경험척도 수정 한글판(IES-R-K)을 사용하여 각 100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설문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성별, 연령별, 계급별, 부서별 고위험군 빈도를 조사 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구성요소인 침습, 회피, 과각성의 평균 점수를 산출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100명으로 제한적인 연구였으나 소방관 30.6%, 경찰관 25.5%가 고위험군 이었고 침습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이희선, 2012). 침습 점수가 높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피 점수 수준이 가장 높게 산출 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2007년 현직 경찰관 1,044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충격척도 설문을 시행 하였고 이중 33.3%가 고위험군 이라는 결과를 얻은 연구가 있었으며 위의 결과로 본연구와 같이 계급별, 부서별, 근무 기간별로 점수수준을 분석 하였다. 부서별 분류 시 분석 결과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서의 분류를 수사·형사, 생활안전, 경비·교통, 내근으로 4가지 근무부서로 분류하였을 때는 유의한 차이의 점수 수준을 보였고 생활안전 부서에서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신성원, 200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 설문 시 기간의 분류를 1개월 이내, 1-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으로 분류 하여 1-3개월을 급성기와 만성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을 보면 급성기와 만성기를 나누는 것은 정신과학 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시행하였던 고위험군 선별이나 점수 산출 등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시기와 관련 없이 고위험군 이라는 것 자체와 외상경험척도점수가 주요한 요인으로 시행된 연구 결과가 있었다.(Stephens, 1999; Mann, 1990)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계급, 부서, 성별 이외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수준, 혼인상태, 출동횟수, 흡연여부, 운동여부, 음주여부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정도와 생활 습관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도 주요한 변수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선별하는 기준인 고위험군 비율과 점수에 관한 요인은 따로 분류되어 별개의 분석이 진행 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업무적 특성 도출에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신성원, 2011; 신덕용, 2012)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첫 번째 외상경험척도 수정 한글판(IES-R-K)을 사용하여 자가 기입식 설문임에도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은현정 등, 2005) 이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 했을 뿐만 아니라 외상경험척도 수정판(IES-R)을 이용한 타 연구와의 점수 비교나 고위험군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817명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연구에 참여 하였다는 점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전에 시행된 연구에 비해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세 번째 강점으로는 국내 경찰 조직은 외국과 달리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 형태가 정형화 되어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분한 부서별 연구결과가 전국 경찰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VI.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 번째,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중 41.1%가 고위험군 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는 소방관, 구급대원 등 기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 비율이다. 특히 고 위험군 중 외상경험척도 점수가 35점 이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임상 적 진단이 의심되는 경찰관의 비율이 17.3%이었는데 일반인의 유병률 6.8% 보다 높은 수준 이었으며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한 기존 연 구 결과인 8.2%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두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한 계층은 충격 사건이나 직접외상 을 경험한 경찰관 이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 다. 계급으로는 경위 계급이 가장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의 구성 요소인 회피에 대한 점수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근무기간이 증가 할수록 외상을 겪은 경찰관의 업무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외상의 경험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서 이 외에 정보·보안 부서에서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연구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취약군 으로 예상 되었던 부서와는 다른 결론으로 향후 연구에서 주의 깊게 연구 및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수사, 형사, 기동대 부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군이 유의 하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은 단면 연 구의 한계로 생각되며 이들 부서 경찰관들의 ‘건강 근로자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201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 계급별 인력구성 p.46-47
- 201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12 신고건수 p.72-73
- 201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서 및 지구대별 관할인구 p.25-26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0호, 2013
- 신덕용, 전만중, 사공준, 대도시 소재 남성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척도로 평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관련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 24 권 제 4 호,397-409, 2012
- 신성원, “경찰관의 PTSD 수준 및 대처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266-272,2011.
-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44권 3호, 2005
- 이옥정,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희선, 경찰,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위기 관리논집, 제8권, 제1호, 2012
- 이선미, 은헌정, 한국판 사건충격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대한 신경정신과학회지 38권 3호, 1999.
- 황인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Alain Brunet, Annie St-Hilaire, Louis Jehel, Suzanne King, Validation of a French Version of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Can J Psychiatry*, Vol 48, No 1, February 2003
- Alexander DA, Klein S. Ambulance personnel and critical incident: impact of accident and emergency work on mental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Br J Psychiatry* 2001;178:76-81.
- Baumert J, Simon H, Gundel H, Schmitt C, Ladwig KH: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evaluation of the subscales and correlations to psychophysiological startle response patterns in survivors of a life-threatening cardiac event: an analysis of 129 patients with an implanted cardioverter defibrillator. *J Affect Disord* 2004; 82: 29 - 41.
- Beck JG, Grant DM, Read JP, et al: The 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sample of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J Anxiety Disord* 2008; 22(2): 187 - 98. 20. Yehuda 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N Engl J Med* 2002; 346: 108 - 14.
- Cornell W, Beaton R, Murphy S, Johnson C, Pike K. Exposure to traumatic incidents and prevalence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urban firefighters in two countries. *J Occup Health Psychol* 1999;4(2):131-41.
- C. Stephens and N. Lo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ew Zealand Police: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following traumatic stress," *Anxiety, Stress, & Coping*, Vol.12, pp.247-264, 1999.
- Galea S, Ahern J, Resnick H, et al. Psychological sequelae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New York City. *N Engl J Med* 2002;346:982.

- Horowitz M, Wilner N, Alvarez W.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1979;41(3):209-18.
- Inslicht, Sex differences in neurosteroid and hormonal responses to metyrapon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pharmacology*, 2014 Jun 21
- I. Miller, Demography and Attrition in the New Zealand Police 1985-1995, Unpublished report: New Zealand Police National Headquarters,1996.
- J. M. Violanti and D, Paton, Who Gets PTSD: Issues of Posttraumatic Stress Vulnerability,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2006.
- J. P. Mann and J. Neece, "Workers' compensation for law enforcement relate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8, 1990.
- Kwon SC, Song JC, Lee SJ, Kim IA, Koh JW, Ryou HC, Kim SH, Kim DH, Jung SA.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related factors in firefighters of a firestation.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8;20(3):193-204
- Mina Ha, Sang Chul Roh, Jung Sun Park. Shiftwork Duration and Metabolic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3;15(2):132-139
- Min SK. *Modern Psychiatry* (translated by Shin DY). Ilchogak company. Seoul. 2005. pp 317-21. (Korean)
- Nozomu Asukai, Validation of Japanese version of the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n Annual Report of the Research on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Toky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0

- Nozumo Asukai,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Japanese-Language Version of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J): Four Studies of Different Traumatic Events
- Neal LA, Busuttil W, Rollins J, Herepath R, Strike P,Turnbull G. Convergent validity of meas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mixed military and civilian population. *J Trauma Stress* 1994;7(3):447-55.
- Nick Cowen, Comparisons of Crime in OECD Countries, CIVITAS Institute for the Study of Civil Society, 2010
- Norris FH, Foster JD, Weisshaar DL: The epidemiology of sex differences in PTSD across developmental, societal, and research contexts. In: *Gender and PTSD*, pp 3 - 42. Edited by Kimerling R, Ouimette P, Wolfe J.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 Pillay LV, Ambike D, Husainy S, Vaidya N, Kulkarni SD, Aigolikar S: The prevale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relatives of severe trauma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Indian J Crit Care Med* 2006; 10(3): 181 - 6.
- Riddle, Robin Thomas,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for Ph.D., pp.64-67, 1999.
- Stein MB, Walker JR, Hazen AL, Forde DR. Full and parti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indings from a community survey. *Am J Psychiatry* 1997;154(8):1114-9.

- Seedat S, Le Roux C, Stein DJ: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operational members of the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Mil Med* 2004; 168: 71 - 5.
- Wu, Chan,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CIES-R).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003 Feb;38(2):94-8.

19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땀, 호흡곤란, 메스꺼움,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꿈 적이 있었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부록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윤리심의결과 통보
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우) 120-752
 Tel. 02-2228-2530 Fax. 02-313-3292 Email. ygph_irb@yuhs.ac

심 의 결 과 통 보 서

수신	성명	이준희	소속(전공)	보건학
과제번호	2014-129			
연구과제명	국문	대한민국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		
	영문	Study of Korea National Police Officer'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연구목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술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구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간대상연구 <input type="checkbox"/> 인체유래물 연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구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기관 <input type="checkbox"/> 다기관(참여기관 수)			
심의종류	<input type="checkbox"/> 정규 심의 <input type="checkbox"/> 신속 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의 면제			
심의일자	2014년 2월 25일 (화)			
심의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책임연구자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보완)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 동의서(설명문 포함)	
	<input type="checkbox"/> 계획서 변경		<input type="checkbox"/> 중재기록서	
	<input type="checkbox"/> 중간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	
	<input type="checkbox"/> 중지 또는 종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 작성 일지(Daily)	
	<input type="checkbox"/> 결과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연구대상자 동의서 면제 사유서			
연구위험수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Level I(최소위험)		<input type="checkbox"/> Level II(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input type="checkbox"/> Level III(심각한 후유증 초래 가능)		<input type="checkbox"/> Level IV(사망 또는 기형 초래 가능)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 후 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 후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보류			
과제승인일	2014년 2월 25일 (화)		승인 유효기간	2014년 7월 31까지
심의의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ABSTRACT

A research on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police officers in Korea.

Lee, June-Hee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bjective: Police officers in Korea perform much overloaded duty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research on current situation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problem issues of the police officer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high risk group in the police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frequency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Method: Participants and Method: 3,817 police officers nationwide that experience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one year. Survey on the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IES-R-K)

Results: According to IES-R-K, among participants, the ratio of high risk group was the highest at the group of 50-59 years old(48.3%), on the other hand, was the lowest at the group of 20-29 years old group(27.6%).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working department, the staff of Police Precinct shows the highest ratio of high risk group(45.9%), the staff of department of intelligent and security shows 43.5%, department of traffic shows 43.3%, department of public safety shows 42.2%. From the perspective of rank, the group of Inspector shows 45.9%, the highest ratio of high risk group and the lowest rank police officer shows 32.2%. From the total population of 3,817, 1,569 persons(41.1%) show the score of 25 over that classified into the group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high risk group and control group and applie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Considering age grou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oup of 20-29 years old, the group of 30-39 years old has 1.56(95%, confidence interval, 1.18-2.07), the group of 40-49 years old shows 1.68(95%, confidence interval, 1.26-2.23), the group of 50-59 years old shows 1.99(95%, confidence interval, 1.52-2.62). Considering the ran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west rank police officers, Senior police officer group shows 1.46(95%, confidence interval, 1.15-1.86), Assistant inspector group shows 1.56(95%, confidence interval 1.29-1.89), Inspector group shows 1.78(95% , confidence interval, 1.45-2.19) and Senior Inspector, Superintendent group didn't show significant results.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depar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ffic shows 1.88(95%, confidence interval, 1.21-3.12), staff of police Precinct shows 1.92(95%, confidence interval, 1.25-2.94), department of

intelligent and security shows 1.90(95%, confidence interval, 1.03-3.50), department of public safety shows 1.78(95%, confidence interval, 1.15-2.76). It shows four departments results increase significantly in odds ratio.

The scores of components of post traumatic stress, intrusion, avoidance, hyperarousal were produced analyzed according to the age group and the rank group. As the age and the rank become higher, the scores of intrusion, avoidance, and hyperarousal increase significantly.

Conclusion: 41.1% of the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d post traumatic disorder are classified as high risk group. This means the control and the treatment of the police officers are more essential than the other vocational groups. Especially, the group which has over than 35 points of the index of trauma consists of 17.3% of the population. The group which is vulnerable to post traumatic disorder is the group of 50-59 years old, inspector. It means the police officers who have more experience and more age are weaker at the post traumatic disorder. Different from assumption, the group of department of intelligent and security shows higher score of post traumatic disorder. It must be investigated later at a succeeding research. The research assumed that department of investigation, department of detectives, department of riot police company show high score in post traumatic disorder but the results shows they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from other department. The result means the limit of the cross-sectional research.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multi-dimension Cohort method. Finally, the implication is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help the selection of the group for the

treatment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help the police officers raise the self-consciousnes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Key word: police officers, post traumatic disorder, mental health, IES-R-K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